

CONTENTS



- 04 은평구평생학습관 소개
- 05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사업 소개
- 06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네트워크 지도
- 08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담당자 덧붙임글
- 09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운영 성과
- 수색동**
- 10 향긋한 커피향이 나는 수색동주민자치회관
- 12 책과 배움이 있는 글간 광명문고
- 14 소모임 가득한 책놀이터 수색한숲도서관
- 16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공방 지중해소나무
- 신사동**
- 18 만들고 나누고 배우는 공방 자파리 공작소
- 역촌동**
- 20 여행을 꿈꾸는 맘들 뽀데모스
- 22 동네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초록길도서관
- 24 동네 사랑방 토정골사랑방
- 응암동**
- 26 따뜻한 정이 넘치는 응암2동주민자치회관
- 28 문화와 예술 복합공간 노리터
- 30 마음치유 수공예 공방 수다쟁이손가락
- 32 열린 학습 공유 주방 재밌게 배우고 재미당



녹번·응암동

- 34 주민 소통 방 산골마을

녹번동

- 36 글로 소통하는 대한검정회

대조동

- 38 즐거움을 향유하는 식당 루덴스키친-타파스
- 40 가치 공유 연구소 은평청년새싹공간

불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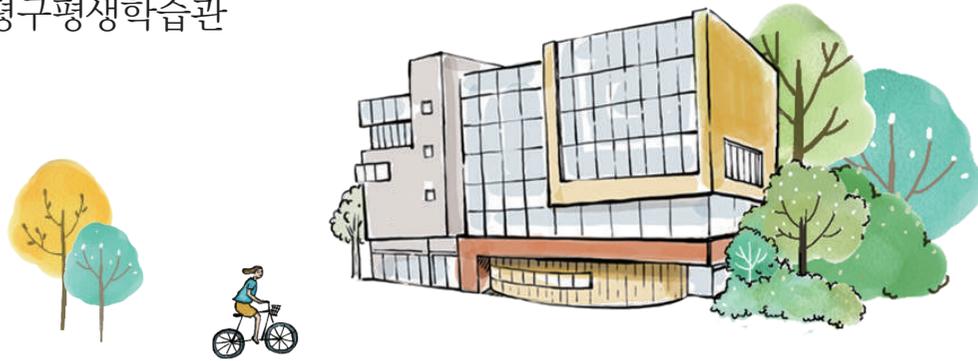
- 42 마을 작은 공방 4월의 윤 아뜰리에
- 44 배움을 나누는 동네 목공방 나무만들
- 46 공유체험장 은평물품공유센터

진관동

- 48 회복하는 예술 공간 나무가 모인 숲
- 50 마을 문화를 물들이는 물푸레북카페
- 52 책을 넘어 배움을 나누는 산책마을작은도서관
- 54 단지에 웃음을 퍼트리는 책뜰에작은도서관
- 56 마을 카페 카페옴니버스
- 58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me:人 심리상담카페
- 60 '은평배움모아' 동네배움터 학습후기
- 62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홍보
- 63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네트워크 파티(성과공유회)



행복한 배움, 가치있는 성장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지속가능한 은평마을 평생학습의 허브입니다.

비전	삶을 담아내는 학습, 함께 성장하는 은평		
목표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은평평생학습	모두에게 활짝 펼쳐진 은평평생학습	변화의 주인공을 낳는 은평평생학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 숨은고수교실 • 학습동아리 • 작은도서관&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누림프로젝트 • 은상프로젝트 • 늘배움학교&네트워크 • 평생학습 브랜드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하는학교 • 질문하는학교 in 학습관 • 다빈치실험실 • 은평배움모아&배움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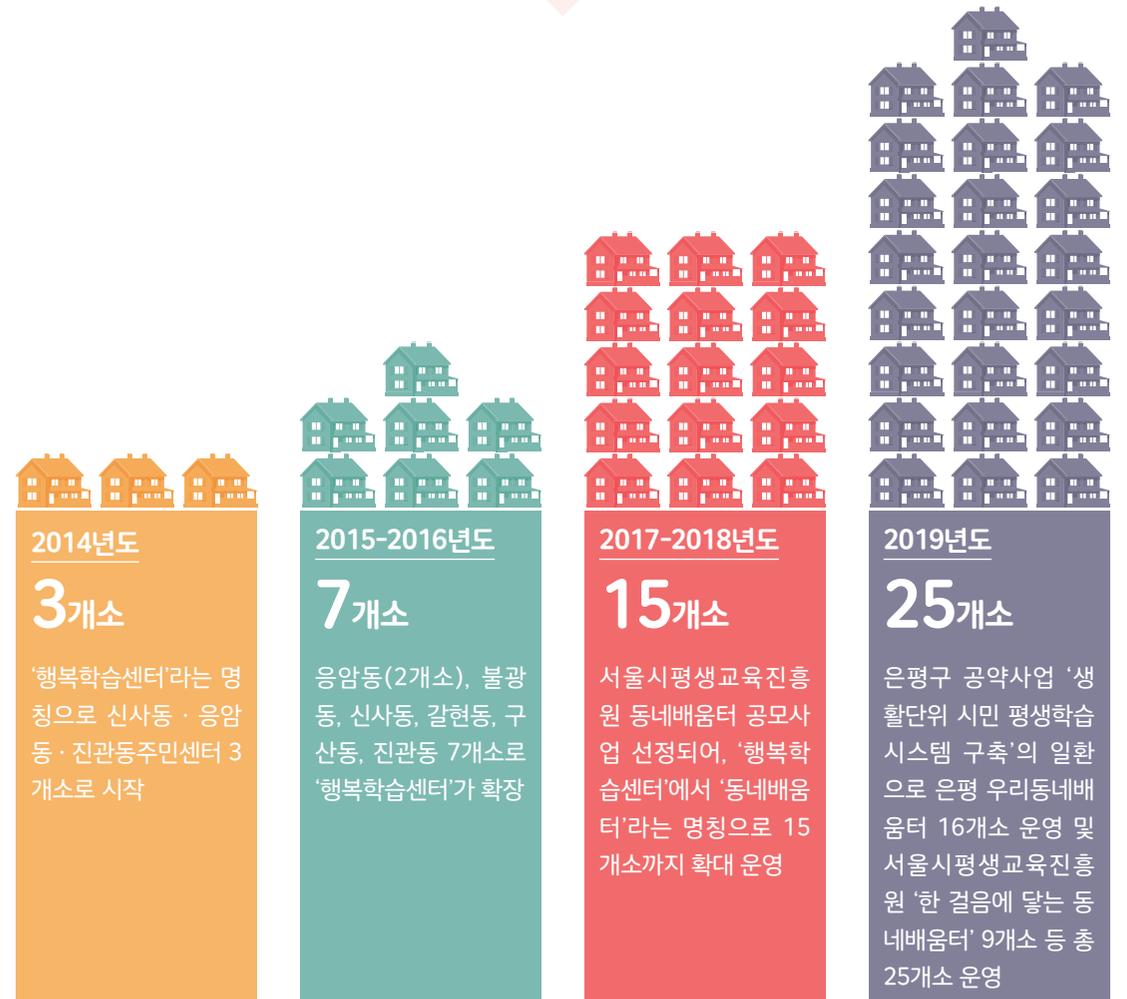


- ☎ 전화 02-351-3673~4
- 🌐 홈페이지 edu.eunpyeong.go.kr
- 🗨 카카오톡 pf.kakao.com/_vxixfv
- 📝 블로그 blog.naver.com/eplearning
- 📘 페이스북 facebook.com/eplearning
- 📺 유튜브 youtube.com ▶ **은평구평생학습관**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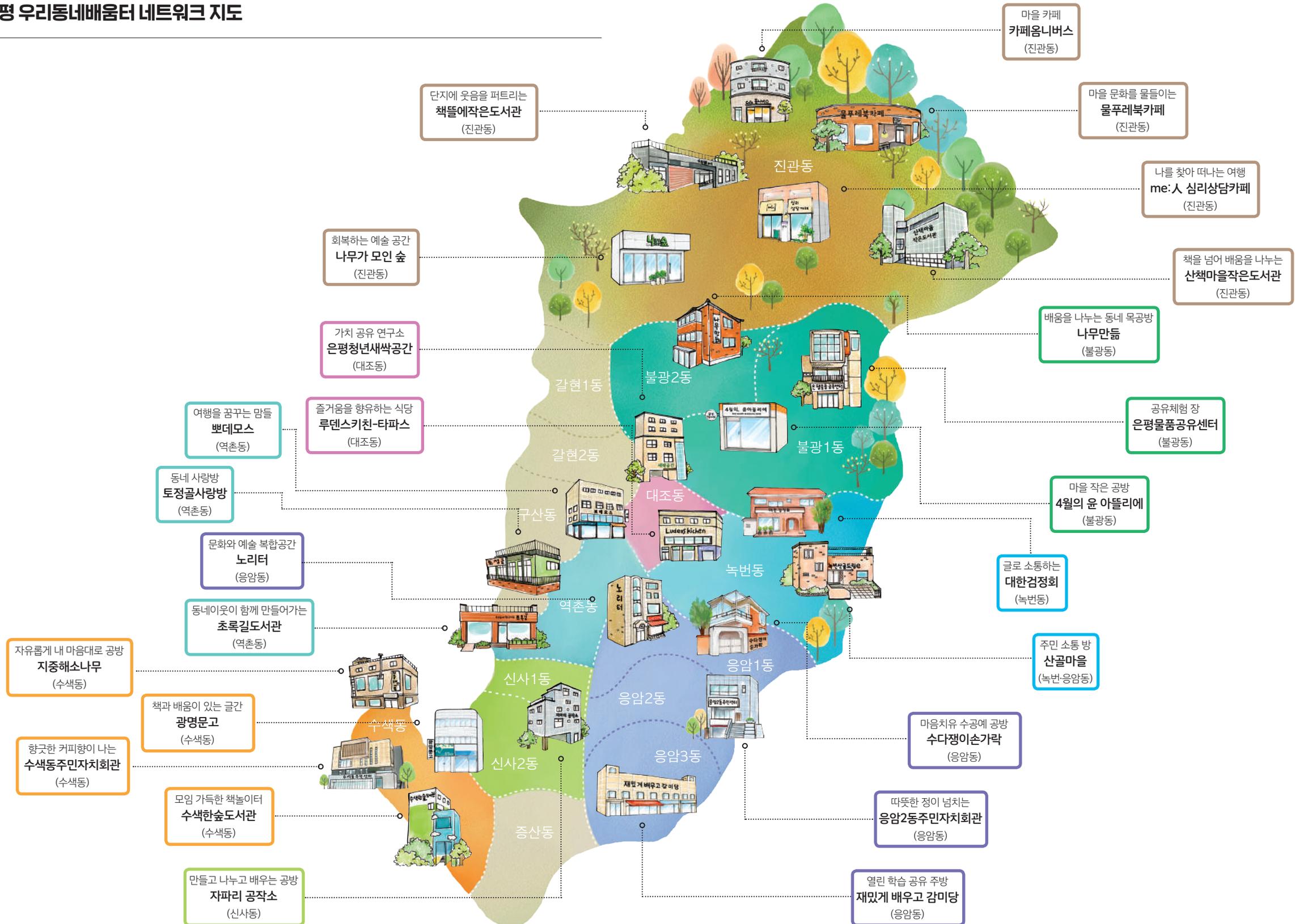
※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은평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친구가 되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문의하세요.

학습자치가 생활자치로 확장되는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은평 우리동네배움터는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리 학습공간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 앞 카페, 공방,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등 동네 곳곳이 학습공간이 됩니다. 은평 우리동네배움터는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리 학습공간을 발굴·지원합니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새로운 이웃과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소소한 학습 활동으로 더 나은 동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네트워크 지도



강민주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총괄

2019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는 25개소로 2018년 15개소에 이어서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 확대된 한 해였어요.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행착오도 많았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바쁘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뿌듯함도 컸답니다. 동네 곳곳에서 배움을 확장시켜주시는 세분의 선생님들, 운영진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배움터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세요. 배움터 선생님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양진형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담당

배움터 방문 첫 날! 학습자들에게 배움터를 잘 전하고 싶어 소개말을 몇 번씩 되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이웃과 배움을 즐겁게 나누는 운영진의 모습'이 몇 십 배 더 좋은 소개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로서 배움터에 어떤 모양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배움터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인 만큼 배움플래너들과 이런 고민들을 나누니 더 좋은 해결책도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전화, 문자, 이메일로 저와 소통하며 함께해 주신 플래너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사업 취지에 맞는 신규 배움터를 발굴하려고 약 2주 동안 팀장님과 4명의 담당자가 탐방하듯 은평 온 동네를 골목골목 다녔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하고 고민을 나눌 담당 선생님들이 있어 힘이 났고,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감사했습니다. 배움터는 '일로 만난 사이'지만, 담당하며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배움터의 세 살을 함께 보내 즐거웠고, 배움터가 알찬 열 살, 스무 살이 될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박지영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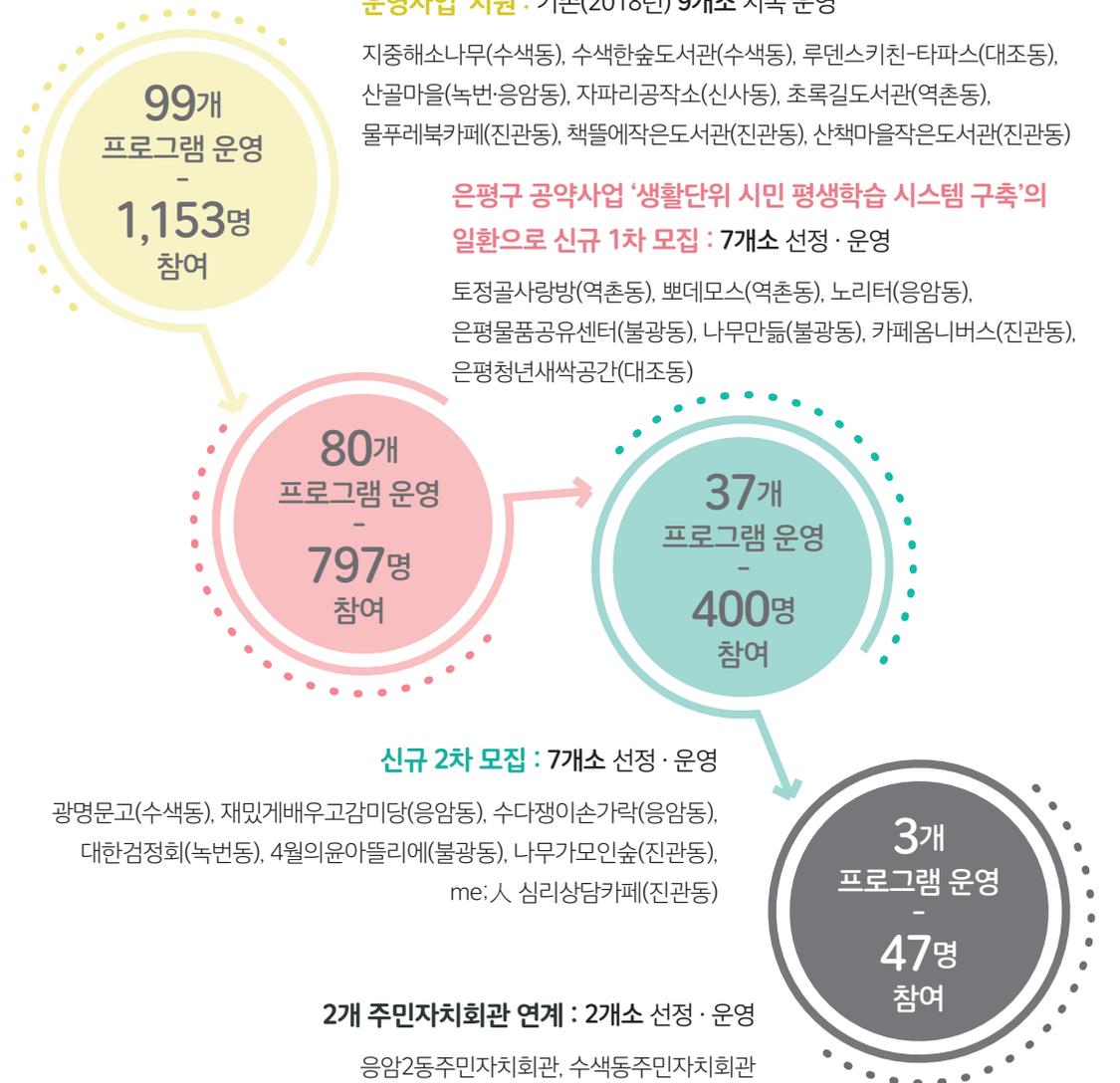
다양한 공간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배움터 선생님들의 소중하고 값진 수고와 노력으로 '2019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는 어떤 해보다도 풍성한 배움과 열정들이 넘쳤답니다. 다가온 2020년 우리동네배움터를 통해 주민과 지역, 공간이 이어지고, 공동체 모임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생활자치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게 서로 도우며 성장해 가요. 2019년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능 기부와 공간 기부로 배움터의 장을 활짝 열어주신 모든 배움터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지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담당

올 한해 동네배움터에서 즐거운 배움의 시간 보내셨나요? 더 풍성한 배움이 있는 동네배움터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분이 재능과 열정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더 많은 은평주민과 같이할 수 있었어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툰 부분도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동네배움터와 함께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이 동네배움터를 통해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동네에서 퍼져나간 배움이 은평구,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녹아들 때까지 열심히 달려볼게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동네배움터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219개 프로그램 운영 2,397명 참여



책과 배움이 있는 글간

광명문고

수색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68

배움터 문의 010-2011-2782



수색동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동네 서점입니다. 늘 이웃에게 열려있어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행복한 배움과 문화의 공간이기를 꿈꾸며 곳곳하게 나이를 먹어 가는 동네배움터입니다.



프로그램

신중년을 위한 북큐레이션

문인화 그리기

성평등 시민교육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하는 유튜버라이프

디퓨저 만들기



김숙이 플래너

처음에는 열린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역 문화와 교육에도 책임감이 생겼고 SNS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처음에 동네배움터를 시작했을 때는 학습자 모집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어요. 그렇지만 배움터를 운영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차도 타 주시며 수업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학습자도 계셨고 배움에 열정적인 분도 계셔서 다양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람을 느꼈고, 점점 학습자 모집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있을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시기에 배움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주민들을 서점 책 손님으로만 대했다면 배움터를 통해 이제는 소통이 가능해진 언니, 오빠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동네배움터는 '꼭 필요한 곳'이 되었어요.



문인화 그리기

문인화 그리기 프로그램은 그림 그리기 초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동네배움터 4회차 수업에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집 가까운 공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좋았어요. 나의 소질과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소소한 발전이 있었어요.

문인화 그리기 학습자

소모임 가득한 책놀이터
수색한숲도서관

수색동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66
수색대림아파트 제2 관리동 1층

배움터 문의 02-304-8684



남녀노소 부담 없이 책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모임에 함께할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의 열린 공간입니다. 근처 봉산 숲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부터 영어, 노래, 동시, 몸리듬 놀이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쿵치따치 바디퍼커션
우리동네 봉산 숲배움터**

나도 노래 잘 부르고 싶다

맛있는 동시

숲으로 떠나는 펜드로잉

영어로 만나는 노래&그림책이야기

뜨개소품 만들기



김현정 플래너

배움터에 새로운 이웃들이 와서 즐겁고 열정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니, 배움에는 나이나 환경의 편견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 주민들에게도 배움터가 '활기찬 분위기의 유익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어요. 다른 배움터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다른 배움터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며 노하우도 들어볼 수 있어 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동네배움터는 '개인에게는 단체에게는 날마다 발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네배움터에서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한 발짝 다가와 빠져보세요. 분명 행복해질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움터를 운영하는 일 년 동안 바쁘고 빠르게 지나온 것 같지만 다시 돌아보니 무척 보람차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함께 도움 주신 우리 수색한숲도서관 자원봉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지원해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신 동네배움터 담당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만나는 노래&그림책이야기

동네배움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기관처럼 성과와 결과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이웃주민이 즐겁게 경험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좋았어요. 제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돈독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역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만나는 노래 & 그림책 이야기 강사 김선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공방

지중해소나무

수색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71
수색역 광장 옆

배움터 문의 010-3027-2866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그리고 인생에 있어 어디쯤에 서 있는지 생각의 여유를 갖게 하는 동네배움터입니다. 매듭공예, 가족공예, 목공, 독서토론회,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공테라피

팔죽음악회

말모듬 독서토론회

가족공예

열무김치 담그기

매듭공예

마음치료&마을치료

미더덕장 만들기



김수진 플래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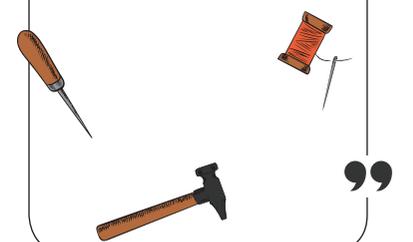
지역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해서 처음에 동네배움터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배움터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과 신뢰가 생겼고, 우리 지역에 무한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움터에 방문하는 학습자들이 이런 수업을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지 몰랐다면 너무 좋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열정좀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열정으로 가득차서 수업이 끝나도 자리를 뜨지 않게 배움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40~50대 학습자들도 많습니다. 배움터에서 시작한 배움이 또 다른 배움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 가족공예

배우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격도 좋아지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고요. 배움터에 참여하며 다양한 배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가족공예 학습자



만들고 나누고 배우는 공방

자파리공작소

신사동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길 3-3, 1층

배움터 문의 japari.modoo.at

*홈페이지에서 '특특메시지' 전송



‘우리 동네에도 배우고 만들고 나누고 싶은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공간입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을 공방을 꿈꾸며 탄생했으며 서점에서 책을 빌리듯 만들 것이 있으면 편하게 다녀가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민화 소품

그림책으로 배우는 일본어 & 나만의 번역책 만들기

생활 도예, 생활 목공
: 다목적 스톨 만들기

마을탐방
: 우리는 마을에서 살아요

옆집에 서양미술

일본가정식



허남선 플래너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주민들이 하고 싶었던 수업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학습자로서 모두 즐겁게 수업에 임해주셨어요. 출석률도 모두 좋으셨고요. 기억에 남는 학습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꼽자면 민화 수업과 일본어 그림책 수업에 참여한 분이예요. 여름에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어 학습동아리를 통해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네배움터를 통해 인연이 생기고 오랫동안 같이 배우다보면 이웃이 된 느낌이에요.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면서 바뀐 점들도 꽤 있었는데, 가장 먼저 새로운 이웃들을 알게 되어서 좋고, 새로운 이웃을 만나면서 우리 동네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은평구 안에 재주꾼이 곳곳에 많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동네 이웃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망설이는 순간 정원 마감이요.”



일본가정식 만들기

새로운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일본 된장을 종류 별로 직접 맛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배움터에서 배우고 난 후, 일본가정식 책을 구입해서 일식을 직접 만들어 보았고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반찬 만들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파리공작소 같이 이렇게 좋은 배움터가 지역에 또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어요.

일본가정식 만들기 학습자



여행을 꿈꾸는 맘들

보데모스

역촌동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39, 2층

배움터 문의 010-4485-0216



스페인어, 일어, 사진을 배우며 자녀와 함께 여행의 꿈을 키우는 맘들의 배움터입니다.



프로그램

인물사진찍기 이론 및 실습

초초기초 여행 일본어
스페인어 회화 사회적기업대표 정경섭 특강
팬더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역사 속에서 바라본 '오늘'

사진가가 바라 본 '사람'



남지현 플래너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수업 준비 등 동네배움터를 처음 운영하면서 어려움과 염려가 많았어요. 첫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웹사이트와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 홍보를 했지만 학습자를 유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수업으로 만난 학습자들과의 추억이 많아요. 그 중 팬더와 함께하는 우쿨렐레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수업을 위해 집에서 자고 있던 우쿨렐레를 꺼내기도 하고, 중고로 구매하기도 하고, 지인에게 선물로 받기도 하면서 학습자마다 공수해 온 악기에 대한 스토리를 전하며 초급학습자로 시작했는데, 종강 후 우쿨렐레 발표회까지 열었답니다. 소소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한 학습자분은 그동안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다가 동네배움터의 교육이 무료라 바로 신청하셨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죠.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이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매 순간 학습자들이 좋은 배움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힘이 났고,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팬더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우쿨렐레는 기타와 달리 현이 4개뿐이라 코드 잡기가 어렵지 않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고수 강사님까지 만나 더 쉽게 악기를 익힐 수 있었어요. 집에서 연습하지 말라고 하신 강사님의 당부와 달리 열성적으로 연습을 했던 청개구리 학습자들은 SNS를 통해 원하는 악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종강 후 조출했지만, 아기자기 신났던 발표회를 열었죠. 학습자 모두에게 가슴 뭉클했던 순간이었답니다.

팬더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학습자



동네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초록길도서관

역촌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길
부호아파트 102동 상가 1층
배움터 문의 010-8676-2900



마을 사람들의 재능과 기부로 만들어진 민간도서관입니다. 초록길도서관은 아이들이 책 읽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배움터이자 놀이터이고, 엄마들에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소모임 공간이자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입니다.



윤성화 플래너

지역에 있는 아이들, 어른들과 배움의 기회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플래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동네배움터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배움터를 통해 환경교실에 참여했는데, 환경을 지키고 사랑해야겠다는 인식도 생겼더라고요. 무엇보다 배움터 사업을 하면서 초록길도서관 동네배움터와 함께 하려는 이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이 보다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동네배움터를 '기회의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에 많은 학습자들이 배움터에 와서 배움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한 마디 남길게요. "삶의 풍성함을 느끼고 싶나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나요? 동네배움터로 오세요."



프로그램

에너지센터탐방

색연필로 민화그리기 동화쓰기 & 동화책 만들기

시 창작교실

어린이환경교실

생활자수

문학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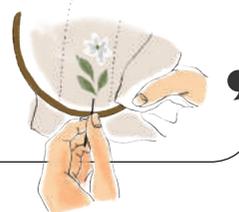


생활 자수



배움터에서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생활 자수를 배우면서 바느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가까이 계셔서 든든했어요. 초록길도서관에 대해 알게 되며 배움터를 알게 되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생활자수 학습자



동네 사랑방
토정골사랑방
역촌동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34-1
배움터 문의 070-7576-2311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자 쉼터이며, 어른들과 함께 앓을 나누는 배움의 공간, 소통의 공간, 가진 것을 나누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프로그램

웃음팡팡! 신바람 건강 체조

도토리 책 놀이터

시민교육

아로마힐링향 만들기

**오피디와 함께
나만의 5분 영상완성**

수채캘리그래피

솜씨그리다



손지영 플래너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웃들의 참여,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로, 동네배움터로 토정골사랑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오피디와 함께 나만의 5분 영상완성' 프로그램에 노부부가 스마트사용법을 배우러 오셨다가 영상 제작까지 배우고 가시며 "살면서 밥만 할 줄만 알았지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네"라고 하셨어요. 그 후 가족들과 나들이한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아들에게 보내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눈물을 흘리던 노부부 학습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배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추억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움터가 된 이후 토정골사랑방에는 작은 변화도 생겼어요. 배움터 프로그램이 모두 종강된 후에도 이웃들이 모여 후속모임을 진행하고, 반찬이나 간식을 챙겨 오셔서 함께 나눠 먹으며 동네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일상처럼 공간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작은 변화 속에서 보람이 느껴져요. 앞으로 우리 동네 안의 작은 변화들이 배움의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도토리 책 놀이터

배움터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배움터에서 참여자로 수업을 듣다가 강사활동에 우연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후 지속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배움터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새로운 활동을 하며 나누는 삶에 동참하게 되었죠. 강사로서 아직 어려움도 있고 어설피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어요.

도토리 책 놀이터 강사 남정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응암2동
주민자치회관**

응암2동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100
배움터 문의 010-9750-4524



응암2동 주민들을 위한 응암2동주민센터입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쉼터 공간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배움터입니다.



프로그램

**우리 동네
역사의 흔적 찾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버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응암2동 주민자치회 최영준 간사

응암2동 주민자치회관에 동네배움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응암2동 주민자치회 자치활성화 분과 주최로 현장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분과 총무분이 플래너 역할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또한,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처음 알게 됐다는 주민분들도 계셨고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들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동네배움터 사업은 향후 주민자치회 자치활성화 분과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벌써 내년 사업도 기대가 됩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 역사의 흔적 찾기**

자치활성화 분과에서 도출한 2개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해볼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벌써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상할 만큼 주민들의 반응과 주민자치회의 기대가 큼니다. 프로그램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치활성화분과 총무박형중



문화와 예술 복합공간

노리터

응암동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 554
지하 1층

배움터 문의 010-2077-4384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예술복합공간입니다. 이웃들과 소통의 장소, 교육의 장소, 나눔의 장소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꽃차와 함께하는
현대무용

시민교육

향기를 나누는
'향기TALK TALK'

미술과 함께하는
자아찾기

안전교육

타로와 인문학



이수정 플래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배려하고, 함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미술과 함께하는 자아찾기 학습자는 "미술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미술학원은 부담이 되고, 망설이다가 배움터 프로그램 모집 내용을 보고 바로 신청했는데 그림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울한 저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도 되었고 작품을 제작하면서 미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라고 후기를 전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프로그램이 종강 되었는데 지금도 문의가 많아요. 배움터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웃이 먼저 배움터의 프로그램을 문의해 주시니 배움터를 운영한 것이 뿌듯해요. 동네 다양한 공간들을 방문했을 때 마음에 쏙 드는 공간을 보면 '이런 곳이 배움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짚었던 공간이 동네배움터가 되어 함께 소통하고 나눔의 공간으로 열려지면 참 기쁠 것 같아요.



미술과 함께하는 자아찾기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제가 배움의 기회를 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결과물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를 만나 뿌듯했어요. 배움터를 통해 은평구평생학습관과 타 배움터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에 많아져 누구나 배우고, 재능을 나누는 동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술과 함께하는 자아찾기 학습자

마음치유 수공예 공방
수다쟁이손가락
응암동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2길 12-26
배움터 문의 010-9118-6908



마음을 치유하는 수공예 공방입니다.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의 아담한 아지트 같은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자연물과 실로 엮는
소품 만들기**

또 다른 나 만나기

감성이 담긴
나무 소품

구리를 이용한
생활소품

**바람따라 흐르는
우쿨렐레**



김은영 플래너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을 해보았던 입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장을 펼쳐놓는 작업은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가르침의 열정과 배우의 열정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때문에 동네배움터 현판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응암동의 배움터로서 동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성실하고 열심히 공간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마을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배움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이 삶의 일부분임을 느끼게 되었고, 이웃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들여다보게 되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자연물과 실로 엮는
소품 만들기**

배움터 환경이 아늑해서 좋았어요. 강사님들이 좋은 재료로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좋았고, 집 근처 가까운 곳이어서 부담이 없는 점도 좋았어요. 또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즐거웠고요. 배움터에서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마을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연물과 실로 엮는 소품 만들기 학습자



열린 학습 공유 주방
재밌게 배우고 감미당
응암동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247
배움터 문의 02-308-5252



열린 학습 공유주방으로 맛있는 음식과 빵을 만들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프로그램

빵만들기 천연 세제

아로마테라피 천연조미료

반찬 만들기 소통교육

양말목 공예 **과자만들기**



이현수 플래너

공간을 새로 오픈하며 동네배움터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처음 기획하고 시작했을 때 가진 기대치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주민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운영하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팁들을 얻어 간다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특히 '건강한 빵 만들기' 수업은 만드는 과정이 길고 어려웠지만, 직접 빵을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학습자 분들이 정말로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행복한 표정들이 얼굴에 드러나는데 흐뭇했답니다. 한 해간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주민들과 나누며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지역에서 소외받고 관심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배움을 나누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재밌게 배우고 감미당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습을 운영하여 행복창출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한 빵 만들기 ”

가까운 곳에서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들을 저렴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완성된 성과물을 볼 때면 잘했든 못했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똥 손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주변 이웃들과 어울릴만한 계기가 없었는데, 수업을 들으며 비슷한 관심사의 이웃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함께 정보 교환을 하면서 지금은 지역의 다른 프로그램과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동네배움터에서 좋은 힐링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건강한 빵 만들기 학습자 ”

주민 소통 방
산골마을

녹번·응암동

녹번산골마을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578-27

응암산골마을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579-20

배움터 문의 02-354-8613



녹번산골마을과 응암산골마을이 하나의 마을로 활동하고 있어요. 주민공동시설인 '산골드림e'를 거점으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배움을 이어나가는 주민 소통 방이에요.



프로그램

신나는 난타

미술교실

레크리에이션

리더십 소통교육

행복한 노래교실

기공체조

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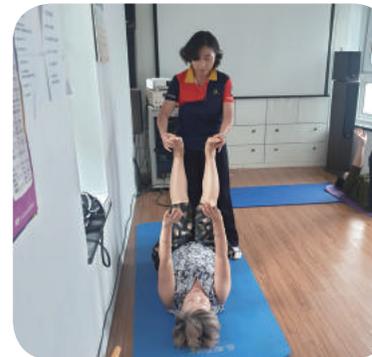
반려원예치료

실버 건강 체조



이지연 플래너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특히 기체조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더욱 많이 관심을 가졌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더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주민들의 행복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동네배움터 운영 전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도 적고, 공간을 잘 활용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주민들 간에 왕래도 많아지고 마을회관도 활기찬 공간이 되었어요. 수업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주민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공동체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산골마을 동네배움터가 이웃과 함께 즐겁게 배우는 행복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배움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강사로 성장해서 동네배움터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몸과 마음의 힐링 체조

기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수업이에요. 기체조 호흡 명상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인지 학습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즐겁게 배우고 갔어요.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몸이 바로 선 것 같다고 좋아하시기도 했는데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건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배움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와 운동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또한, 마을을 주민들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열의와 정성을 보며 저 또한 은평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건강과 웃음을 전하는 강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의 힐링 체조 강사 박은숙

글로 소통하는
대한검정회
녹번동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4길 6-12

배움터 문의 010-3182-8533
070-4895-5077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 기관으로서 한자급수자격검정과, 한자·한문전문지도사자격시험, 전국한문실력경시대회 등 문자관련 종합자격제도 운영 기관입니다. 한자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여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배움터입니다.



프로그램

**역사와 함께 읽는
우리마을 천자문 공부방**

울곡이이가 들려주는
격몽요결과 예절교육

시민교육

**붓펜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박상환 플래너

플래너 역할을 처음 맡았을 때와 배움터 사업을 다 마친 후의 저를 돌아보니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 동네배움터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공간을 통해 주민과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붓펜 캘리그래피', '천자문', '격몽요결' 등 각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강사들과 담론을 나누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서너 달이 지났네요. 바쁘게 달렸던 만큼 보람이 커요. 처음 개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을 해주신 학습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함께 읽는
우리마을 천자문 공부방**

기존 천자문 수업은 한자 해석만 하는 수업이라 따분했어요. 하지만 '역사와 함께 읽는 우리마을 천자문 공부방' 프로그램은 한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며 글과 관련된 역사까지 연계하여 가르쳐 주시니 천자문과 역사 1+1 수업이 정말 유익했어요. 중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며 천자문을 배우니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천자문 공부방 학습자

즐거움을 향유하는 식당
루덴스키친
-라파스
 대조동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09
 배움터 문의 010-4564-7537



결혼이주여성들과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인 '마을무지개'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여럿이 향유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유쾌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

- 음의 건축학
- 푸드테라피
- 내면그림교실
- 커피의 꿈
- 정통탱고
- 출발 인문학
- 작은파티
- 소울송 노래교실
- 리더십 이야기



김도영 플래너

짧은 시간 안에 배움터를 이끌어가는 게 어렵기도 했지만 즐거웠어요. 배움터를 시작할 때부터 공간이 가진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문화 음식을 만드는 '작은 파티'나 향수를 찾아가는 '소울송 노래교실' 같은 교육들을 기획했어요. 모든 수업들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소울송 노래교실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배워간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어쩌면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배움터와 함께한 시간이 꿈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 때는 늘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고 믿어요. 많은 주민들이 루덴스키친에서 꿈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즐거운 일상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 나만의 소울송 노래교실 ”

이주여성들,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함께 하는 시간이었어요. 잊힌 세월을 끌어올려 함께 우리 가곡을 부르며 정화하는 느낌이었죠. 이주여성들과 함께 우리 노래를 부르니 정서적 동화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음 기회엔 다양한 문화의 가곡이나 민요도 함께 하고 싶어요. 바쁘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 가곡을 함께 부르는 것은 깊은 산에서 약수 한 모금 하는 것 같은 힐링이에요.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만의 소울송 노래교실 강사 이선



가치 공유 연구소
은평청년새싹공간

대조동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7길 9
주주베 A동 2층

배움터 문의 02-351-3503



협동조합 가치공유 연구소가 2017년 은평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사업과 지원 활동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를 소통하고 나누는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열린 시민대학입니다.



프로그램

발로 사진 배워볼과

탱글탱글 솟솟과

나와 탭댄스
함께할과

마케팅으로돈벌어볼과

스마트
멀티미디어과

꽃으로 힐링해볼과

젬베쳐볼과

블로그로
자기계발 해볼과



백승준 플래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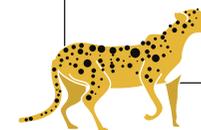
배움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불광대학교는 누구나 학과장이 되어 강의를 개설할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번 배움터 프로그램으로 불광대학교는 꽃으로 힐링해 볼과, 젬베 쳐 볼과 등 36개의 강의를 진행했어요.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 해주실 분들을 모집해서 학과장으로 섭외를 하고 강의를 개설하다 보니 강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섭외해 강의를 기획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모두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에 공을 들였어요.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준비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모든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강사와 학습자분들의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저와 학과장(강사), 학습자 모두에게 불광대학교 프로그램은 좋은 기억으로 종강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주제와 학과장, 학습자분들을 만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초급 젬베 쳐 볼과

불광대학교 시간표를 보다가 젬베라는 단어를 보고 '젬베가 뭐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악기인데?'라는 호기심에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찾아보며 강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한번 해볼까?'라는 도전의식이 생겨 신청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불광대학교 초급 젬베 쳐볼과 강의는 낯선 악기, 낯선 음악, 낯선 강사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수업을 듣는 내내 강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악기를 연주하는 느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들었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학습자분들과 합창 맞추 연주도 했어요. 처음이라 어설픈 연주였지만 저희끼리는 내심 뿌듯하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까지 생겼죠. 수업이 짧아 아쉬움이 커요. 내년에도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꼭 다시 듣고 싶어요.

초급 젬베 쳐 볼과 학습자



마을 작은 공방
4월의 윤 아뜰리에
불광동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5가길 1-2
배움터 문의 010-4333-1537



천연재료로 캔들 & 비누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그 외 캘리그래피, 가죽, 비즈스티치, 패브릭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네 작은 공방입니다.



프로그램

블링 블링
비즈스티치 공예

생화 소품 공예 개성만점 패브릭 소품 공예

마음의 힐링
캘리그래피 **멋스러운
통가죽 공예** 시민특강



신윤미 플래너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어요. 가죽공예 프로그램의 경우 수업 시간이 늦은 저녁시간인데도 수강생들이 결석 없이 모두 참여해 주셨어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학습자들이 자신이 제작한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던 프로그램이었죠. 배움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속한 공방 외 타 배움터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아져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강사로서, 학습자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지역 공동체와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죠. 개인 공방을 동네배움터로 운영하면서 이웃과 함께 학습으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패브릭 공예

개인 작업실이 없는 강사에게 공간 걱정 없이 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배움터가 동네에 생겨서 좋아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어서 좋으며 감사해 하시는 학습자들을 보면 배움터가 동네 활력소처럼 느껴져요. 앞으로 강사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동네의 배움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어요.

패브릭 공예 강사 강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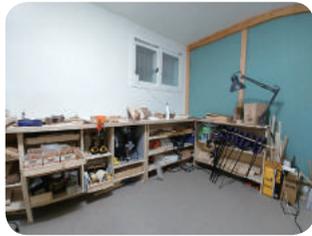
배움을 나누는 동네 목공방

나무만들

불광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1가길 11-1

배움터 문의 010-9718-0201



목공체험, 인문학, 생활 공예 등의 수업을 운영하는 목공방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은 이웃들과 함께 동네 가까운 곳에서 만드는 재미, 표현하는 기쁨,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할머니 목공 교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목공 교실

가족 공예

뜨개질

시민 교육

디퓨저 만들기

커피의 세계

청소년 인문학 강의

생활 속 인문학 강의

공동체 인문학 강의



윤혜진 플래너

배움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주민들을 만나고 삶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할머니 목공교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살아오면서 자신이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에 열정을 다해 목공 작업을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해하시는 모습과,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께서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오셔서 액자를 만들고, 그 액자에 자신의 모습을 담은 후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을 보며 배움터 지원을 잘 했다는 생각했죠. 동네배움터의 경험은 저의 생각들을 배움으로 확장시키는 좋은 기폭제가 되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이 원하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나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공생과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생각하며 해야 한다'는 배움을 얻었어요. 이렇게 공간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교류한다면, 더 건강한 사회, 더 건강한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배움터를 통해 내의 삶의 '좋음'을 동네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음'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할머니 목공 교실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목공 수업을 들으며 동네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 또한 동네를 위한 일들에 참여하고 싶다는 작은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배운 할머니 목공교실을 계속해서 더 배우고 싶어요. 나와 같은 늙은이들이 젊은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함께 운동하고 생전 처음 못질도 해 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우리 동네에 망치 소리,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길 바라요.

할머니 목공 교실 학습자



공유체험 장
은평물품공유센터

불광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4길 11-1,
2층, 4층

배움터 문의 02-358-0606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유체험 장으로 2013년 서울시 참여 예산사업 선정과 은평구 공공부지활용으로 2015년 설립된 물품공유센터입니다. 소유한 것을 지역 이웃과 공유하며, 자원을 아끼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프로그램

공유자원 리스트업

공동체 학습실천

시민교육

공유 알아보기

목공체험

소통 및 대화 교육



신호근 플래너

참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가 감사훈련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하여 외부 강사 활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기쁘고 뿌듯했어요. 또 참여자가 강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저 도 참여자가 되어 보았던 일과 목공체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버려진 나무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제작물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 등 많은 모습들이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어요. 배움터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공유에 대해 좀 더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듯해요. 공유체험으로 공유의 재미를 알게 된 아이들이 수업이 종강되었는데도 간혹 찾아오고 있어요. 진짜 동네 공유센터가 된 기분이에요.



공유알아보기

배움터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배움터에서 참여자로 수업을 듣다가 강사 활동에 우연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후 지속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배움터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새로운 활동을 하며 나누는 삶에 동참하게 되었죠. 강사로서 아직 어려움도 있고 어설피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어요.



공유알아보기 학습자



마을 문화를 물들이는
물푸레북카페

진관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48-51

배움터 문의 02-356-9410



2012년부터 물푸레나무가 물에 푸르름을 주듯 마을 문화를 만들어 함께 물들여가고자 만들어진 마을서재이자 마을카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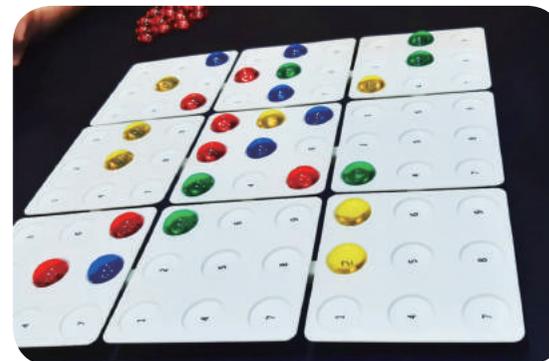
프로그램

- 막막한 글쓰기
- 공간에티켓
- 어린이 뜨개학교
- 생애주기테라피
- 한문장자수
- 마을열린특강
- 복바인딩
- 나도 유튜버
- 뜨개 만다라



홍연경 플래너

이전에도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했었지만, 동네배움터를 하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새로운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공간 에티켓 교육>을 수강한 어린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노키즈 존이 한참 이슈가 되는 요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공간에서 서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간 에티켓을 배워보는 교육이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인증 카드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친구 또는 엄마와 함께 방문해 공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무척이나 귀여웠고, 기획한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어요. 2014년부터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며 '지혜 방앗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움의 곡식을 뿜아 지혜를 만드는 곳이죠. 배울 거리는 많고 나눌 거리는 더 많아요.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함께 배우고 연결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해요.



저녁의 보드게임

우리동네배움터 물푸레북카페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이 너무 즐거웠고, 일상의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느껴졌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였으니까요.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동아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보드게임 지도자를 해볼까도 진지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보드게임 심화과정이 생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녁의 보드게임 학습자

책을 넘어 배움을 나누는
산책마을작은도서관
진관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6길 7
1110동
배움터 문의 02-351-3677



2016년에 개관한 산책마을도서관은 20명이 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어요. 8,000권이 넘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모임으로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프로그램

- 동화구연 책놀이
- 독서논술
- 보드게임
- 창의미술
- 만들기교실
- 캘리그래피
- 웰빙플라워
- 미니어처 공예
- 초등아트스쿨



송연희 플래너

우연한 기회에 동네배움터를 알게 되었어요. 진관동 구석에 있는 기자촌 11단지에서 경제·시간·공간적인 제약들에서 벗어나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활동을 제공하고, 성인들에게는 문화생활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싶어서 배움터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동네배움터를 통해서 다양한 이웃을 만날 수 있었고, 도서관도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신청 대란을 방불케 하기도 했어요. 접수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줄을 서있기도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신청 전화가 또 와서 3명의 인력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결국 10분 만에 신청이 마감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수업을 연장해달라고, 왜 개설을 더 안 하냐고, 언제 또 개설할 거냐고 하는 민원 아닌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플래너로서 우리동네배움터를 운영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지만, 도서관이 '책뿐만 아니라 문화강좌를 함께 기획하고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지역주민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은평 전역에 있는 동네배움터는 모두 다른 특색을 담고 있으니, 은평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화구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책놀이

도서관이나 센터와 다르게 접근성이 좋아서 저 또한 편하게 오갈 수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 산책마을작은도서관이 배움의 장소로 활용되는 게 부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런 동네배움터가 있나 살피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았어요. 늘 가까이 있는 이런 작은 공간들이 잘 활용되어 다양한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화구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책놀이 강사 강지숙

단지에 웃음을 퍼트리는
책뜰에작은도서관
진관동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로2
1023동 1층
배움터 문의 02-355-6893



은평 뉴타운 10단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으로, 순수자원봉사자
로만 운영되는 단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
예요.



프로그램

한자야 놀자
프랑스자수
3D펜
숲나들이
그림책이 좋아
역사탐방
캘리그래피
사업계획서



김순영 플래너

이웃과 접하기 힘든 아파트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에요. 작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큰 의미를 갖는 곳이지요. 동네배움터와 함께 하면서 이웃과 가까워지는 즐거운 경험이 늘어났어요. 핸드폰만 바라보던 아이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 집안일에만 얽매어 있던 주부들이 아기자기한 소품들의 수를 놓으며 힐링을 찾아가는 모습 등을 통해 이웃들과의 소소한 정을 나눌 수 있었죠~ 배움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의 말과 반짝이는 눈빛은 소중한 감사의 인사처럼 들리면서 아직도 눈에 선해요. 주민들의 동네 사랑방에서 소소한 배움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슬리퍼를 신고 민낫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배움터로 함께하고 싶어요. 멋진 동네배움터 함께 만들어가요~!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언제나 찾아와 함께해요!



멋진 나들이~ 역사와 함께 탐방



아이가 평소에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보고 박물관에도 자주 가보았지만, 저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발견한 책뜰에작은도서관의 수업은 이웃의 친한 친구, 동생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한 체험활동의 탐방 수업이 아니라, 배움터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가서 실제로 체험하며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지 않던 아이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역사에 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몸소 느끼기도 했어요. 아이들만 보내는 탐방 보다 함께하는 수업이라서 더욱더 즐거웠고, 역사에 대한 앎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 멋진 프로그램이었어요.

탐방에 함께한 학습자



마을 카페
카페오미버스
진관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로 77
배움터 문의 070-7785-4888



문학, 영어, 뜨개질,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자기 계발 활동과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 모임도 하는 마을 카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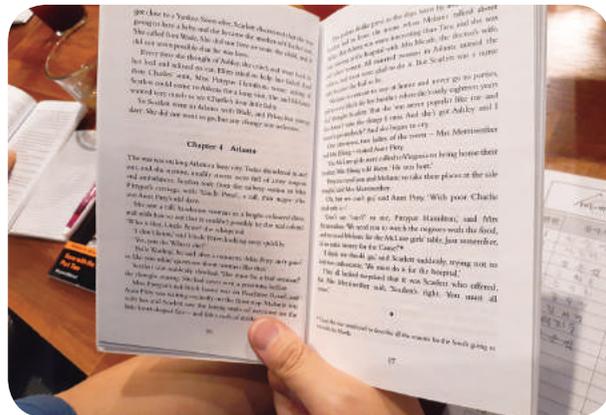
프로그램

주민 낭독극
 엄마가 읽는 영어원서 **문학**
만나러 갑니다
 시민교육 뜨개수다
 풀피부 계절 화장법 **지구마을 여행자**
 어린이 Reading Club
시마을 한달살이



임지영 플래너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지구별 여행자 프로그램의 경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딸과 함께 곧 여행을 떠나겠다고 한 학습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카페 공간이 늘 배우고 나누는 삶을 꿈꾸는 카페 공간이었기에 배움터 사업의 취지와 비슷하여 사업 전과 후 크게 변화 된 점은 없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할 수 있었던 경험은 새로웠어요. 그리고 카페 공간을 배움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도 많이 생겼어요. 배움터를 통해 이웃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엄마가 읽는 영어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를 동네에서 들을 수 있다고 감사해 하시는 학습자들의 격려로 더 열심히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동네 여러 공간이 배움터가 되어 많은 강사들이 재능을 나누고, 이웃들은 동네 가까운 곳에서 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읽는 영어원서 강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me:人 심리상담카페

진관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9동 상가 112호
배움터 문의 010-8676-2900



삶에 대한 고민들로 어느 날 문득 마음에 감기가 찾아왔을 때 차 한 잔 마시며 평온하게 머무르고 쉬어갈 수 있는 곳하기를 바라는 공간입니다. 심리여행과 힐링테라피,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웃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배움터입니다.



프로그램

나를 찾아가는
심리여행
가정식 베이커리
힐링테라피
그림엽서 만들기
젠더 교육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감정코칭
원예 인형 만들기



정재희 플래너

우리 동네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배움터 주변 시설과 이웃들에 대해 좀 더 살피고 알아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배움터 근처 상권을 운영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이웃들과 배움터의 취지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큰 만족감을 보일 때 뿌듯하고 기뻛고요. 아직 떼지 않는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을 보며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언제 하는지 배움터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잠시라도 멈추어 배움터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다보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배움터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학습자가 있어요. 제 손을 잡으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눈가에 눈물을 보였던 학습자가 기억에 남아요. 또 어떤 학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잊고 살았는데, 동네배움터에 참여하면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감정코칭 ”
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아이가 있어 부부 둘만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배움터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참여하는 데 수월했어요. 심리학에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동네배움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마음과 남편,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감정코칭 학습자 ”



동네 밥집, 동네배움터

윤혜진 나무만들



이곳은 불광2동에 위치한 작은 개인 작업실입니다. 목공과 글쓰기를 주 업으로 하는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 작은 공간도 주민들을 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배워서 남 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동네배움터는 그런 저의 취지와 아주 잘 맞았지요. 동네 작은 공간이지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어 두면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과 작은 배움에도 목말랐던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는 기분으로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 대의명분과 거대한 봉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된다면 그게 바로 작은 배움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동네가 활발하게 살아나는 좋은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더불어 '배워서 남 주자'라는 저의 인생 모토와도 잘 맞았습니다.

우선 몇 개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배워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 그래서 구성된 것이 생활 목공교실, 생활 예술창작, 동네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생활 목공교실은 나무로 만드는 것에서 소외되어 있던 할머니들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목공은 남자들의 일이라고 엄두를 내보지 못했던 할머니들은 난생처음 본인들이 만들어 본 메주 틀, 액자, 도마, 필통을 보며 매우 기뻐하시더군요. 평생음 음식 만들기 아이 돌보기 아니면 생업으로 힘들었을 할머니들이 자신의 손으로 나무를 만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렵다 여겼던 망치질과 대패질이 그리 어렵지 않고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즐거워하셨습니다. 할 수 없을거라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온 얼굴에 퍼지시더군요. 한 번은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방문해서 목공수업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할머니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참석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십사리 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어서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요. 자신이 만든 것을 손에 들고 돌아가는 할머니의 순한 얼굴에서 내가 하는 일의 사소함이 큰 보람으로 가슴을 울리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배우고 가르치는 엄마들!

생활 예술창작은 주로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족공예, 코바늘뜨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전 시간에 뭔가를 배우고 싶은 엄마들을 위해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으나 자신들을 위해서 선 듯 돈과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엄마들이 편안하게 와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열정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들 처음 해보는 거라며 수줍어하던 처음의 모습은 간데없고, 재료를 들고 집에 가서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고 선생님을 붙잡고 묻고 고치면서 초보자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편이 깔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라 하면, 누구나 잠시 자신의 역할로 인해 숨겨두었던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엄마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들은 4회차로 프로그램이 끝나자 자신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가족공예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새로 오고 새로 온 사람에게는 이미 배운 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선생님처럼 상세하게 잘 가르치며 가족공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나다 들르는 동네배움터

배움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누구나 편하게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디퓨저와 커피 강의를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배움터 문을 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마치 맥주 한 잔을 마시러 들르는 동네 호프집처럼 디퓨저를 만들고 하루의 고담함을 새로운 것을 배운 기쁨으로 채우고 가셨습니다.

직장인들이 배움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과는 달리 회사가 끝나고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배움에 허기를 느끼고 동네에

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이 대부분은 오전과 오후에 몰려 있어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잊지 않고 가셨습니다.

배울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기 위해 차를 타고 자신이 사는 곳과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 주변

에 배움터가 있다는 것은, 집 앞에 단골 밥집과 술집이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동네배움터는 편안한 동네 술집이면서 밥집이면서 찻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단골손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네배움터의 상차림은 소박하지만 정성과 맛이 담보되고 누구나 편히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찾은 힐링

김순영 책뜰에작은도서관



우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동네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들과 어울리기 좋고 아이들이 가득한 아파트단지에서 살고 있는 것에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듯이 나에게 집중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는 뒤돌아보기 무섭게 눈에 보이는 집안일에 치여 지내기 일쑤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집안일과 멀어짐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집 앞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동네배움터가 되어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책뜰에작은도서관은 진관동 은평뉴타운 10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유아부터 청소년과 성인들까지 골고루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주민자원봉사자들로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좋은 책과 동네 소모임 등으로 활성화되어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너무 예뻐서 동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진행되는 문화센터와 각종 프로그램들은 거리와 시간 등을 이유로 놓치는 바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네배움터는 익숙한 공간에서 원하는 배움과 이웃들과의 공감이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강좌는 캘리그래피입니다. 평상시에 도전해보고 싶

었지만 쉽지 않았던 걸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강좌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네배움터의 예쁜 현판이 붙어있어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쁜 마음과 가벼운 옷차림으로 부담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들고, 나누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움터가 가까이 있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붓과 먹 냄새 날리는 첫 시간은 긴장감마저 들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 좀 떨리기도 했습니다. 소질이 없으며 소심하게 붓을 들거나 묵묵하게 쓱쓱 써 내려가는 분까지 다양한 이웃들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음악과 좋은 글귀들을 써보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좋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꽃길만 걸어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사랑은 이유가 없다' '고맙습니다' 등 마음을 정화시키는 글로 힐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글씨쓰기 기법으로 생각했던 캘리그래피 수업이 회차를 더해 갈수록 다양한 재료에도 활용해 보면서 소심했던 마음과 숨겨져 있던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인색했던 칭찬의 말도 자꾸만 나오는 시간입니다. 자신감과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 이웃 수강생들은 힐링을 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배움터... 이웃들과의 어울림이 떠오르는 다양한 단어가 되버린 거 같습니다. 단지, 지식과 기술만을 얻어 가면 끝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교류까지 이어지는 즐거운 학교입니다.

언론보도



1차 간담회 & 협약식



2차 간담회 &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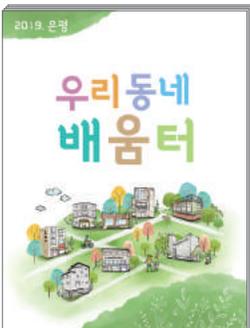
은평배움터
영상기록



네트워크 파티



홍보지 및 소식지



찾아가는 힐링 워크숍



학습-실천 워크숍



2019.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결과자료집

학습자치가 생활자치가 되는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발 행 처 은평구평생학습관

발 행 일 2019년 12월

편 집 은평구평생학습관

디자인·제작 권순미디자인

03404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87

전화 02-351-3673

<http://edu.eunpyeong.go.kr>



평생학습
도시인
평

